

문어가 탈출해도 길을 잃어도... 당황하지 말고 즐기면 끝!



3일 오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 프레스 오픈 행사에서 국내외 취재진들이 코넬리아 파커의 '어둠의 심장'을 감상하고 있다. 일반 관람객들은 5일부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14광주비엔날레 전시는 광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전시관 벽면에 걸린 제레미 델러의 대형 작품 '무제'는 먼발치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작품으로 대형 문어가 무너져내리는 전시장에서 탈출하는 듯한 형상이다. 일종의 눈속임 배너로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다. 그 앞 광장에는 스타팅 루비의 대형 작품 '난로'가 설치돼 있다. 실제로 나무를 태움으로써 이번 행사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모두 5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된 본 전시관은 하나의 '집'으로 연결되면서 독자적인 공간구성을 이룬다. 각 공간 출입구마다 작품이 놓여 있어 연결과 구분을 명확히 한다. 특히 불꽃과 연기를 모티브로 한 엘 울터모 그리토의 그래픽 '미장센'이 전시장 전체를 감싼 것이 인상적이다. 전체적으로 관람동선 표시가 없어 자칫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다.

제1 전시실에서는 구석과 투쟁의 상황에 놓인 신체와 개인의 관계를 다룬다.

전시장을 들어서면 프랑스 음악가이자 프로듀서인 디제이 조아킵이 이번 주제 '터전을 불태우라'를 세 가지 버전의 곡으로 선보인다.

코넬리아 파커의 작품 '어둠의 심장'은 불에 타버린 숲의 잔재들을 가지고 다시 숲을 구현한 작품이다. 미국 플로리다 산불 현장에서 직접 가져온 철사로 엮어 정육면체의 작품을 만들었다. 에두아르도 바수알도의 '삼' 역시 터전이 불에 탄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건물이 타고 남은 잔해를 작은 규모로 축소한 작품으로 그 안에는 죽은 분재, 조각상 등이 채워져 있어 으스스한 분위기마저 느껴진다.

본전시 관람하기

美 산불현장 잔해로 만든 작품

이주자들의 비참한 모습 재현

천편일률적인 한국의 아파트

4전시실 퍼포머 악수 후 입장

1전시장은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분위기가 고조된다. 특히 전시장을 나서면서 만나게 되는 구정아의 흔들리는 벽과 블라시스 카니아리스가 재현한 이주자들의 비참한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긴다.

제2 전시실에서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중인 소비문화와 그로 인한 문제들을 다룬다. 피오트르 우클란스키의 '무제'가 입을 크게 벌려 관람객을 삼킬것만 같다. 전체적인 갤러리 분위기는 한층 더 밝아진다.

발걸음을 옮기면 최수왕 작가의 '소음'과 테즈아 이시다 작가의 '리콜'이 묘하게 어울리는 공간을 만나게 된다. '소음'은 과장되게 정그리거나 크게 웃는 등 타인들의 시선을 의식한 군상들의 얼굴 표정을 엮어 왜곡된 심리를 그대로 드러낸다.

제3 전시실에서는 집과 파편화된 도시 풍경 등 건축을 주제로 꾸며졌다. 전체적으로는 전시장 분위기의 변화가 가장 크다. 어둡게만 느껴졌던 갤러리 분위기는 우르스 피셔의 설치작품 내부로 들어가면서 화사한 분위기로 급변화된다. 이 작품을 지나면 레나타 루카스는 천편일률적인

한국의 아파트 건축, 특히 비엔날레 전시관 바로 맞은편에 자리한 아파트 단지로 관람객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제4 전시실에서는 현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살펴본다. 알로라 & 칼사다의 퍼포먼스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관람객들은 일렬로 늘어서 손을 내미는 퍼포머들과 악수를 해야만 전시실로 입장할 수 있다.

앤시아 해밀턴과 니콜라스 번의 대형 작품 '러브'가 전시장을 가득 채운다. 헬륨풍선 같은 형식으로 된 이 작품은 상업화된 경제 속으로 관람객을 유혹한다. 에이 아라카와와 임인자의 '비영웅극장'은 극단 토박이, 놀이패 신명 등 지역에서 꾸준히 작업해오고 있는 공연단체들의 기록을 모바일 형태의 아카이브로 구성했다. 두 작가는 기록들을 통해 1980년대 가상의 극단을 만들어 작품을 재해석했다.

4전시실에서는 방명록을 남길 수도 있다. 하얀 벽면에 방문 시간과 이름을 남기고, 전시장 후반으로 향하면 카르슈텐 휠러의 '미닫이 문'이 관람객을 마주한다. 관람객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문과 문 사이에 갇히는 경험을 간접적으로 한다.

제5 전시실에는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에스터 작가의 홀로그램 작품 '피츠카랄도' 단 한점이 전시돼 있다. 이 작품은 영화감독 베르너 헤어초크의 영화 '피츠카랄도'(1982)의 주인공을 전시장으로 불러들인 작품이다. 작가가 피츠카랄도로 변신한 홀로그램 영상형식이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피츠카랄도의 열정과 과장된 몸짓을 표현해낸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달콤한 이슬-1980 그후' 전

광주시립미술관 경유하기

'터전을 불태우라'를 주제로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본전시를 둘러봤다면 발걸음을 옮겨 이웃한 광주시립미술관으로 가보자.

이곳에서는 지난 8월 8일부터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 프로젝트 '달콤한 이슬-1980 그후'가 열리고 있다.

20세기 전 세계 민중 미술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로 14개국 47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작가는 독일 케테 콜비츠로 그녀의 작품이 대거 전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폭동', '희생자들', '살아남은 자들' 등 49점이 전시된다.

북경 루신 박물관 소장품인 목판화 58

20세기 전 세계 민중 미술

점도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인다. 케테 콜비츠의 작품을 보고 목판화 운동을 시작한 루신의 작품 중 '실직 노동자' 등 당시 시대상을 목도할 수 있는 판화를 만날 수 있다. 미국 사회주의 리얼리즘 화가 벤산의 작품도 눈여겨 볼 만하다.

역사적 상처를 안고 있는 제주도, 오키나와, 타이완, 광주 작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강요배, 임흥순, 나상욱, 임남진씨 등과 함께 오키나와의 긴조 미노루, 타이완의 황 중트란 등이 참여했다.

현대 미술계 스타로 사회성이 짙은 작가들도 합류했다. 뉴욕이 주목하는 흑인 여성 화가 줄리 메레투는 9·11 테러 등 국가 분쟁을 다룬 작품을 출품했으며 2001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을 수상한 캐나다의 자넷 카디프와 규레스 밀러의



케테 콜비츠 작 '어머니들'

'40성부의 성가'도 놓치지 가까운 작품이다. 그밖에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미술 치료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관람료 5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참여하기

문화로 소통하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비엔날레 전시관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주말 콘서트-즐길 나드오리'(토·일·공휴일 오후3시~6시)는 전문가와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강운숙의 재즈여행 등 록, 클래식, 국악, 월드뮤직 등을 만날 수 있다.<표 참조>

또 광주주비엔날레 중정에서 열리는 '아트마켓-가질 나드오리'(토·일·공휴일 오후 1시~6시)는 캘리그래피, 아트엽서,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등을 전시 판매하는 예술 장터다.

그밖에 팝아트, 도자기, 페이스 페인팅, 헤나아트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되는 '아트체험 프로그램-함께 나드오리'도 눈길을 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장에서 콘서트·아트마켓·예술체험

■ 2014 광주비엔날레 공연일정

일시	공연팀(시간)	일시	공연팀(시간)
9.13(토)	차이나매직(3시) 베이스 플루트앙상블(4시)	11(토)	KFEA 플루트 오케스트라(2시) 소프라노 색소폰 이성관(4시)
14(일)	범기철 태권무용단(3시) 우물안개구리(4시)	12(일)	소프라노 색소폰 이성관(3시) 신디엔터테인먼트(4시)
20(토)	아시아 실버 윈드오케스트라(3시) 더존소리(4시)	18(토)	광주 베누스토오케스트라(3시)
21(일)	차이나매직(3시) 예당(4시)	19(일)	이수연벨리리카데미(3시) 로커스 LOTUS(4시)
27(토)	빛고을 노인 건강타운(3시) 강운숙의 재즈여행(4시) 디아나벨리단(5시)	25(토)	(사)대한가수협회 광주지부(2시) 김진희 벨리댄스 무용학원(3시)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4시)
28(일)	베이스 플루트앙상블(3시) 베에로나라(4시) 보름마당(5시)	26(일)	전남대학교 심포닉밴드(3시)
10.3(금)	트리오아리스(3시) 라스살루이 아카데미 무용단(4시)	11.1(토)	퓨전국악 헤어화(2시) 상-예술문화연대(3시) 재즈 피에스타(4시)
4(토)	석 스트링 콰르텟(3시) 라스살루이 아카데미 무용단(4시)	2(일)	소프라노 김선화와 함께(3시) 최형석&미미의 뮤지컬 갈라콘서트(4시)
5(일)	라단조(3시) 광주엔씨오발레극단(4시)	8(토)	라포르 색소폰 앙상블(3시) 줄(4시)
9(목)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무안지부(3시) 유니버설앙상블(4시)	9(일)	Top 금관5중주(3시)

관람 어떻게

매일 10회 도슨트 프로그램

일부 신용카드 20% 할인

비엔날레 기간(9월5일~11월9일) 중 휴관일 없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티켓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구입할 수 있다.

입장권은 어른 1만4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이다. 단체(20인

이상)와 특별할인권도 준비돼 있다. 행사 전 기간 통용권은 어른 3만원, 청소년 2만원, 어린이 1만원이다.

카드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와 광주은행카드는 동반 1인까지 20% 할인되며 광주은행 비엔날레 제휴카드는 50%까지 할인 가능하다.

또 OK캐시백카드의 경우 1인당 2000원 할인된다. 그밖에 패밀리랜드와 중외공원 내 해피랜드 이용권과 비엔날레 입장권을 묶은 할인 티켓도 판매한다.

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전 10시부터 30분 오후 4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모두 10차례 진행하며 소요시간은 1시간 10분~1시간 30분 정도다. 최대 인원은 20명이며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입구, 도슨트 데스크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선착순)

문의 062-608-4240. www.gwangju-biennale.org.

/김미은기자 mekim@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기쁜 마음 가득 담아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맞이하세요!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5회 연속 선정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연회장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달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